

지역기업 불황속 선전

2011년 경영분석...영업이익률 소폭 증가

부채비율·차입금 의존도는 전국 평균 상회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법인기업들의 수익성은 다소 개선됐지만 성장성과 안정성은 전국과 비교해 다소 취약했다.

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전남지역 소재 법인기업(결산인 6~12월) 3만3589개를 대상으로 벌인 '2011년 광주·전남지역 기업경영 분석' 결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5.0%→5.1%)과 매출액 세전순이익률(3.7%→4.1%)이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다. 이는 전국 평균(4.5%, 3.7%)보다 높은 수치다.

지역 기업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개선된 것은 여수 엑스포를 비롯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첨단 2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 등 개발 단재로 건설업(2.3%→4.6%)부분의 증가폭이 두드러졌고, 기아차 신차 출시 효과가 협력업체들의 실적 호조로 이어져 자동차(3.8%→4.0%)부분에서도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역 평균은 9.8%에서 10.0%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12.2%)에 못 미쳤다. 식료품(4.3%→20.1%)이 크게 늘었지만 고무·플라스틱(31.2%→12.2%), 제1차 금속(31.2%→12.2%)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됐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4.6%→11.8%)의 감소폭이 커 소폭 증가한데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7.0%에서 11.7%로 증가폭이 두드러진 반면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은 전년(14.1%)보다 6.9%포인트나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이 7.3%로 전국 평균(13.6%)보다 낮았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이 6.6%로 전국 평균(5.6%)보다 높아 지역 제조업체들이 불황에 경영을 잘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제조업의 경우 개발 호재로 건설업(-9.5%→-7.3%)과 부동산 및 임대업(20.3%→23.4%)에서 매출액 증가율이 확대됐다.

또 총자산증가율(2.8%)과 유형자산증가율(7.7%)도 전국 수준(각각 9.6%, 9.2%)을 하회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193.8%에서 182.6%로 하락했으나 차입금 의존도는 34.5%에서 35.6%로 소폭 상승해 전국 수준(152.7%, 32.2%)을 상회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국과 비교하면 수익성이 양호하나 안정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장성 면에서 전국보다 제조업은 취약하고 비제조업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본점 소재지가 지역에 있는 영리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본점이 서울에 있는 삼성전자 광주공장, 기아차 광주공장, 호남석유화학, LG화학 등은 제외됐다. /이은미기자 emlee@



“숙취 해소에 좋아요”

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관 수산코너에서 직원들이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대구를 선보이고 있다. 겨울철 생선인 대구는 맛이 담백하고 깔끔해 숙취해소 식품으로 유명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신용카드 사용자 64% “부가혜택 때문에 이용”

현금이나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주로 쓰는 것은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 혜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카드·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원이 최근 카드 이용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로는 전체의 63.9%가 신용카드를 쓰며 체크카드(23.7%), 현금(11.5%), 직불카드(0.8%)가 뒤를 이었다.

상품을 살 때 결제 수단으로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중 1개만 선택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경제적 이익’이 전체의 53.3%에 달했다. ‘편리성과 안전성’은 25.5%에 불과했다.

경제적 이익으로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와 무이자 할부를 꼽은 응답자가 42.1%에 이르렀다. 소득공제와 신용등급 관리는 8.5%와 2.7%에 머물렀다.

신용카드가 있어야 영화관, 놀이공원 할인, OK캐시백 등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 등 누릴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으며 기존 신용카드 부가 혜택을 50% 이상 줄이고 있어 조만간 신용카드 무용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이용자 1000명 가운데 60.3%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꼽았다.

현금, 체크카드를 쓰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3.6%였으며 그 이유로는 ‘경제적 혜택이 부족하다’가 93.3%에 달했다. 신용카드의 폐해로는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응답이 61.1%로 가장 많았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와 달리 상품 가격 할인을 합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자비용 구조의 현금, 체크카드 결제 시 높은 관리비용이 드는 신용카드 결제와 똑같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손해라는 답변이 73.8%에 달했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가격 할인이 되면 신용카드보다 더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91.3%나 됐다.

현재 법에 신용카드 대신 현금,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75.3%였다. /연합뉴스

광주 휘발유 값 11주째 하락

ℓ 당 1906원...전남 1930원

광주지역의 휘발유 값이 11주째 하락하고 있다.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4일 현재 광주지역 주유소 판매 기준 휘발유 가격은 ℓ 당 1905.98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8월1일 1903.11원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지난 9월16일(2006.71원) 이후 79일 동안 하락한 것이다.

광주지역의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ℓ 당 1731.61원으로 휘발유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했다.

전남도 휘발유 가격이 ℓ 당 1929.75원으로 11주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유 가격은 ℓ 당 1751.05원을 기록했다.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유 수입가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가격이 지난달 내내 약보합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국내 가격의 내림세가 유지될 것으로 오피넷은 전망했다. /이은미기자 emlee@

자동차보험 고객 정보관리 구멍

손보사와 정보공유...당국, 실태 점검

자동차보험 고객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돼 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섰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손해보험사들과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지를 가장 정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내부 전용선을 이용해 다른 회사 자

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만기 때마다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보험사에서 만기일자나 사고기록 등을 미리 알고 예상 보험료를 제시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문자가 쇄도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객이 다른 보험사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와 관련한 민원과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현장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가입 고객의 정보를 손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보험사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을 때 다른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넣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위원회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험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험업법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고객정보 공유가 보험업상 법규위반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론내리면 해당업법을 바꿀 수 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은 개인마다 할인이 다르므로 정보공유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정보공유도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커피 한잔의 여유를 아는 ‘男子’

여성보다 40% 더 지출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커피전문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현대카드가 최근 1년간 950만 회원의 외식 성향을 분석해보니 커피전문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40% 이상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했다.

20대 여성만 남성보다 커피전문점 지출액이 많았다. 이는 여성이 커피전문점을 자주 이용하기는 하지만 단테라든지 데이트 등에서는 남성이 커피 값을 내는 경우가 많

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3분기 기준 커피전문점이 급성장한 곳은 인천으로 전년 대비 44%나 매출이 급증했다.

제품별로 보면 ‘커피빈’은 서울과 수도권, ‘엔제리너스’는 지방에서 많이 팔렸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스테이크와 파스타 같은 양식을 즐겨 먹는 지역은 서울 강남이 아닌 광주광역시 충장로 지역이 전국 1위였다.

항구도시 부산에서는 일식보다 양식 매출 비중이 3배 이상 높아 회를 많이 먹을 것이라는 예상이 빚나갔다. /연합뉴스

SM7의 서비스를 경험한 후 하나의 훌륭한 작품이라 생각했습니다

GALLERY SKAPE 손경애 대표

완성! 2013년형 SM7 - 퍼펙트케어 서비스

- ▶5년 안심 소모품 무상교환 서비스 엔진오일 & 필터(5회), 에어클리너 필터(5회), 에어컨 클린필터(2회), 브레이크오일(1회), 와이퍼 블레이드(3회)
- ▶풀격에 준경을 더한 맞춤형 정비서비스 정기점검 서비스(5회/5년), 사전 A/S 컨설팅 서비스(10회/5년), SM7 전담 콜센터 서비스(02-300-3007)
- ▶급이 다른 럭셔리를 완성하는 세심한 서비스 인천공항 무료주차 및 빌렛파킹 서비스(3회/5년), 무상픽업 및 배송 서비스 / 무료 렌탈 서비스(2회/5년/3.5고객에 한함)

장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SM7 VQ25 400cc 공차중량 1630kg, 자동차 연비 10.4㎞/ℓ, CO₂ 배출량 229g/km, 3등급 ▶SM7 VQ25 400cc 공차중량 1640kg, 자동차 연비 9.9㎞/ℓ, CO₂ 배출량 244g/km, 4등급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위,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상주행 연비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철센터 1600-300-3000 / 02-300-3000-4 가거나 가까운 지점 및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www.renaultsamsung.com

COPYRIGHT © 2012 RENAULT SAMSUNG MOTORS

